

북한, 미국에 비핵화 협상 의향 직접 전달

정상회담 사전 접촉사실 확인 국무장관 내정 폼페이오 참여 美 언론, 회담 성사 긍정 평가 “김정은, 트럼프에 확신 줬다”

북한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측에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는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양측 정보당국 간에 비밀리에 실무적 성격의 직접 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들은 이날 “미국 측이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가까이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한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북미 간 비밀접촉에서 평양 측은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향도 직접 미국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북미 간 접촉이 정확히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으나 여러 번 만남이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도 ‘북미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비밀접촉을 가져왔으며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향을 재확인했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언론에 맞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방미한 한국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의 북측의 비핵화 의지 표명을 전해 듣고 정상

회담 제안을 수락했으나, 그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북측으로부터 직접적 반응은 듣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외신들은 북측이 직접 미국 측에 비핵화 협상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북미정상회담의 장애물을 제거, 길을 터줬다.”(WSJ) “김정은이 정상회담에 전념하고 있다는 확신을 트럼프 행정부에 심어줬다.”(워싱턴포스트), “북미정상회담 개최 성사 전망을 높여주는 긍정적 움직임”(블룸버그 통신)이라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
앞서 CNN방송은 전날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이끄는 CIA 내부의 전담팀과 북한의 정보당국 간에 가동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정상회담 장소 결정 등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직접적인 비밀접촉이 이뤄져 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비핵화 개념과 프로세스 등을 놓고 북미 간 이견이 예상되는 등 여전히 과

제가 남아있다고 외신들은 진단했다. WSJ은 “북한의 이번 확인이 반드시 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며 김 위원장이 언급한 ‘단계적·동시적 조치’와 관련, “북한이 상정하는 비핵화 시간표가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장기적 목표일 수 있고 그마저 주한 미군 철수 등 군사적 체제 위협 요소 제거를 전제로 하는 것일 수 있으며, 핵 검증 작업도 추가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도 “북한이 수년간 주한 미군 철수와 핵우산 공약 철폐 등을 핵무기 포기 검토의 선행요건으로 말해온 상황에서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장소와 여건도 아직 안 알려진 상태이며,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시진핑 만났지만... 中, 무기 32종 대북 수출 금지

최근 북중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중국이 대량 살상용 무기로도 활용이 가능한 32개 품목에 대해 8일부터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375호를 이행하는 차원으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8일 공업화산식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국방과학기술공업국과의 공동 공고에서 이런 대북 제재 시행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공고에서 “유엔 안보리 2375호 결의 이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대규모 살상 무기와 탑재 장비로 활용 가능한 품목과 기술, 재래식 무기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대북수출을 8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리아 두마 최대 100명 사망 시리아 반군 거점 지역인 동구타 내 두마에서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8일(현지시간) 두마 외곽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시리아 반군 활동가와 일부 구조 단체는 지난 7일 시리아 두마 지역의 반군 거점에서 정부군의 독가스 공격으로 최소 40명, 많게는 10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화학무기 이어 미사일 공습...지옥이 된 시리아 두마

정부군·반군 측 모두 부인

시리아 반군 지역에 화학무기 의심 공격이 발생하고 나서 이를 뒤 시리아 정부군의 한 비행장이 미사일 공습을 받았다고 AP와 AFP통신 등 외신이 시리아 국영 매체를 인용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리아 국영 TV는 이날 오전 미사일 수발이 중부 흡스 주(州)에 있는 T-4 군용 비행장을 타격한 뒤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시리아 관영 사나통신도 “여러 발의 미사일이 중부 지역의 타이푸르 공항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 공격으로 구체적인 인수는 공개하지 않은 채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사나통신은 전했다. 이 통신은 또 시리아 공군이 군용 기지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에 맞서면서 미사일 8발을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통신은 “미국의 공격 개연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 미사일 피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시리아 반군 장과 지역 동구타 두마에서 벌어진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큰 대가

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다음 나온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미사일 공격의 배후를 부인했다. 미국이 실제 이번 미사일 공습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시리아 반군이 주도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시리아 반군 활동가와 일부 구조 단체는 지난 7일 시리아 두마 지역의 반군 거점에서 정부군의 독가스 공격으로 최소 40명, 많게는 10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는 화학무기 사용설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문학 재상 장구령

장구령(張九齡, 678-740)은 소주 곡강 출신으로 자는 자수다. 문재가 뛰어난 인물로 현종 개원 시기의 명재상이다.
한나라 유방의 참모 장량의 후손으로 어려서부터 문학에 조예가 깊었다. 13세때 쓴 글을 보고 광주지사 왕방경이 극찬했다고 한다. 그는 재상을 역임한 장영의 문하생으로 문단에 명성을 떨쳤다. 현종 시대의 마지막 문인 재상으로 진사과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온 진사파(進士派)의 맥을 이었다. 문벌파의 대표적인 이임보와 격렬한 파벌 싸움을 벌였다. 702년 축천의 총애를 받은 장영지, 장정중 형제가 중신 위원총 등을 포함하는 일과 관련된 서영남지역에 유배되기도 했다. 다시

인 예부상서 이임보를 재상급으로 발탁하려 하자 단호히 반대했다. “재상이란 나라의 안위가 걸린 자리인데 폐하께서 그를 재상으로 삼으신다면 신은 훗날 종묘와 사직에 근심거리가 될까 두렵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임보는 736년 중서령이 되어 재상의 직위에 오르게 된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장량과 장수형제의 처리 문제를 놓고 이임보와 대립하였다. 장구령은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는 동정론을 편 반면 배요경과 이임보는 이와 같이 처리하면 국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제는 배요경과 이임보의 주장을 수용했다. 736년에는 이전 시대에 일어나고 말한 근원을 서술한 전추금경록 5권을 저술해 황제에게 바쳤어. 삭발절도사 우선객의 기용 문제와

장량의 후손...안록산의 난 예견

관직에 복귀해 비서랑과 좌승유가 되었다. 재상 요승에게 상소를 올려 문벌 대신에 재능에 입각해 관리를 등용할 것을 건의했다.
716년에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장안이 수도인 당나라는 식량 등 주요 물자를 강남 지방에 의존하고 있어 남북 교통이 중요한 과제였다. 매관고도(梅關古道)라는 길을 건설한 공으로 영남제일인(嶺南第一人)이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다. 소송과 한류가 그만두자 733년 배요경과 함께 재상에 발탁되었다. 경제전문가인 배요경과 문인관료 장구령은 뜻이 잘 맞았다. 그는 뛰어난 문재와 식견을 바탕으로 황제가 주재하는 경학과 경연에서 발군의 솜씨를 보였다. 재상이 되어 악전(惡錢) 주조 문제와 관련하여 백성들이 스스로 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대책을 내놓았다. 경제전문가인 배요경은 한번 백성들에게 주조를 허용하면 불량한 돈이 더욱 넘쳐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민간의 동전 주조 금지책이 유지되었다.
그는 끊임없이 군주에게 간언했다. 전임 재상인 한류가 쉬지 않고 간언하는 바람에 현종에게 버림받은 사실을 무시했다. 이로써 현종의 불만이 쌓여 갔다. 특히 문학적 재능이 없고 과거를 거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심했다. 734년 현종이 황족의 일원

관해서 황제와 갈등이 생겼다. 현종이 그의 공을 높이 사 상서를 더해주려 하자 반대했다. “상서는 옛날의 남언으로 오직 이전의 재상과 덕망이 있는 사람만 임용했습니다. 우선객은 하급적인 서리에 불과한데 그를 갑작스럽게 중용한다면 조정에서 수치스럽게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이임보가 말하기를 “우선객은 재상의 재목인데 어찌 상서에 있게 할 것입니까?” 이 일로 장구령에 대한 황제의 분노가 커졌다. 736년 황제는 당파를 만든다는 의심을 갖고 배요경과 장구령을 내치고 이임보를 재상으로 발탁했다. 이후 지방으로 좌천되는 등 요직에서 멀어졌다. 740년 세상을 떠나니 문헌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후일 정직을 숭상하는 재상으로 평가되었다.
그는 일찍이 안록산의 난을 예견했다. 736년 해와 거란을 토벌하는 싸움에서 평로토격사 안록산이 크게 패했다. 유주절도사 장수규가 그를 참수할 것을 주장했다. 장구령은 “안록산은 군율을 어겨서 군대를 잃었으니, 법에 서는 죽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신이 그의 용모를 관찰하니 반란을 일으킬 관상이니,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훗날에 격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현종이 그를 사면했는데 이십년 뒤 안록산의 난으로 사천으로 도망가는 비운을 겪어야 했다. 장구령의 안목이 뛰어난을 보여주는 일화다.

나주, 2층주택,사정상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1000만원~~
- 급매 - 6200만원 (일시불 완불조건)
- H. 010-6838-1230